



numbers

vol. 326

대학생의 생활과 신앙 의식 기독교 대학생, 신앙 깊을수록 일상 만족도 높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업무 숙련도와 자영업 소득
- ② 소득 수준별 외로움 체감도

[넘버즈 칼럼]

AI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일하는가: 직업을 넘어 소명으로

2026. 3. 10.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 대학생, 신앙 깊을수록 일상 만족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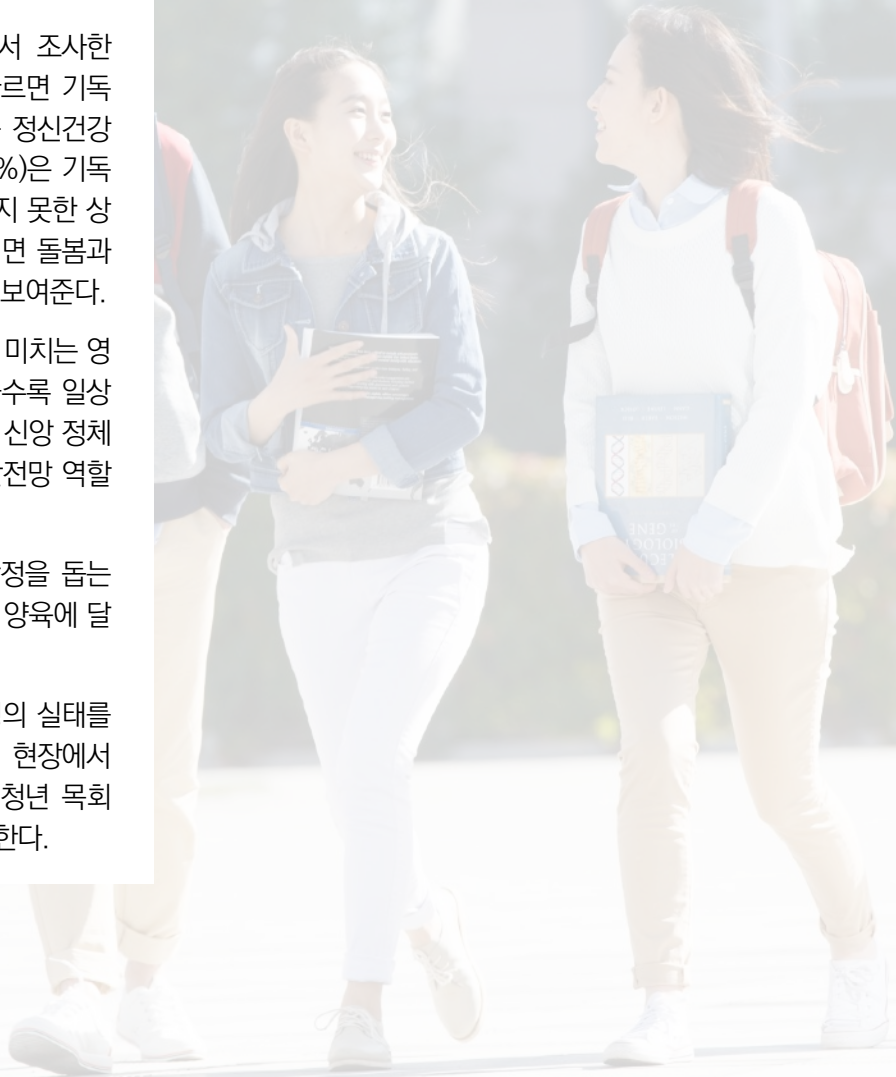
캠퍼스 복음화의 주역인 기독교 대학생들의 삶과 신앙 상태는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작년 10월 한동대 의뢰로 지앤컴리서치에서 조사한 '대학생의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4명(37%)이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특히 4명 중 1명(25%)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캠퍼스 사역이 개별 영혼의 내면 돌봄과 본질적 복음 제시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신앙의 성숙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기독교 청년의 경우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일상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확고한 신앙 정체성이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기독교 대학생 사역의 성패는 정서적 안정을 돕는 목양적 접근과 신앙의 내실화를 꾀하는 질적 양육에 달려 있다.

이번 <넘버즈 326호>가 단순히 기독교 대학생의 실태를 수치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사역 현장에서 정신 건강과 복음 전파를 결합한 구체적인 청년 목회 전략을 세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

조사개요

구 분	일반 대학생 조사	기독교인 대학생 조사
조사 대상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4년제)	대한민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독교 학부생(4년제)
표본 규모	총 500명(유효 표본)	총 300명
조사 기간	2025년 10월 10일~10월 14일(5일간)	2025년 10월 14일~10월 20일(7일간)
표본 추출	지역별 대학생 수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지역별 대학생 수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pm 4.4\%p$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5.6\%p$ (300명 분석시)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의뢰 기관	한동대학교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 지역별 대학생 수는 2024 교육통계연보 4년제 대학교 학생 지역,성,연령으로 비례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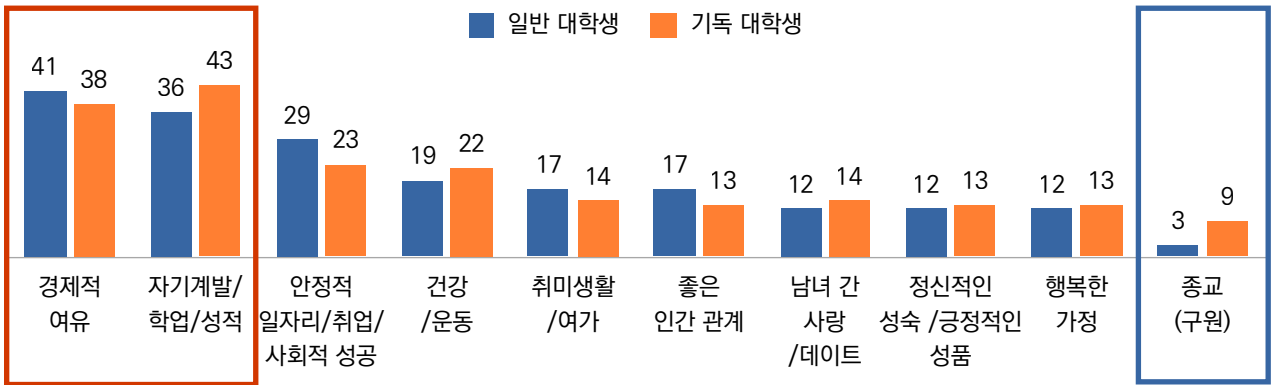
01

[가치관과 우선순위]

한국 대학생 일상의 최우선 가치, '경제적 여유'와 '자기계발'!

- 대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물은 결과(1+2순위 기준), 일반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 모두 '경제적 여유'와 '자기계발·학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 일반 대학생은 '경제적 여유'(41%)를, 기독교 대학생은 '자기계발·학업·성적'(43%)을 1순위로 선택해 순위상의 차이는 있었으나, 두 집단 모두 현실적 안정과 개인 성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 특히 기독교 대학생 중 '종교(구원)'를 핵심 가치로 선택한 비율은 9%에 불과해, 일반 대학생(3%)보다는 높지만 신앙이 일상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기독교 청년들의 현주소를 확인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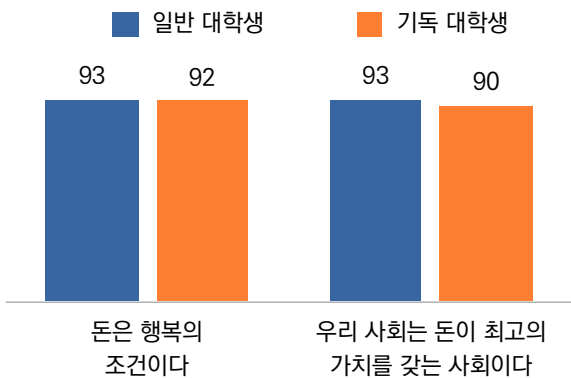
[그림]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1+2순위, %)



대학생 10명 중 9명, 행복의 조건은 '돈'!

- 대학생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돈은 행복의 조건이다'에 일반 대학생(93%)과 기독교 대학생(92%) 모두 압도적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우리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 사회'라는 인식 역시 90%를 상회해, 청년들이 돈을 단순한 수단을 넘어 사회적 생존과 행복을 위한 절대적 가치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물질주의 가치관 동의율 (매우+어느 정도 동의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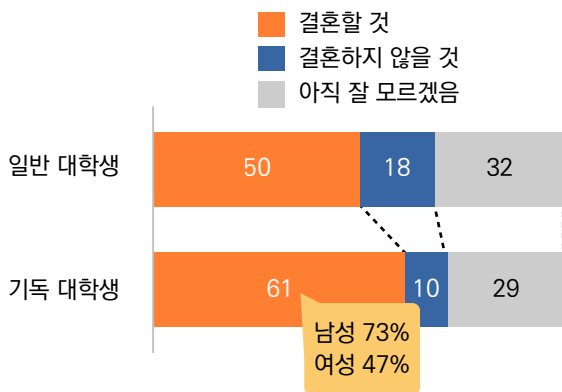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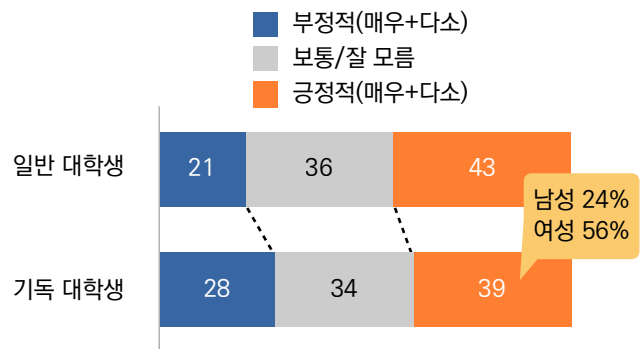
기독교 대학생, 일반 대학생보다 결혼 의향 11%p 높다!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은 기독교 대학생이 61%로 일반 대학생(50%)보다 11%p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 청년들이 일반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비혼주의(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한 태도는 두 집단 모두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혼주의에 대한 긍정률(매우+다소 긍정)은 일반 대학생 43%, 기독교 대학생 39%로 나타나,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4명은 비혼을 삶의 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 기독교 대학생 내부에서는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갈렸다. 비혼주의에 대한 동의율은 남성(24%)에 비해 여성(56%)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기독교적 가치관(결혼지지)과 현대사회 라이프스타일(비혼 긍정) 사이의 충돌이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결혼 의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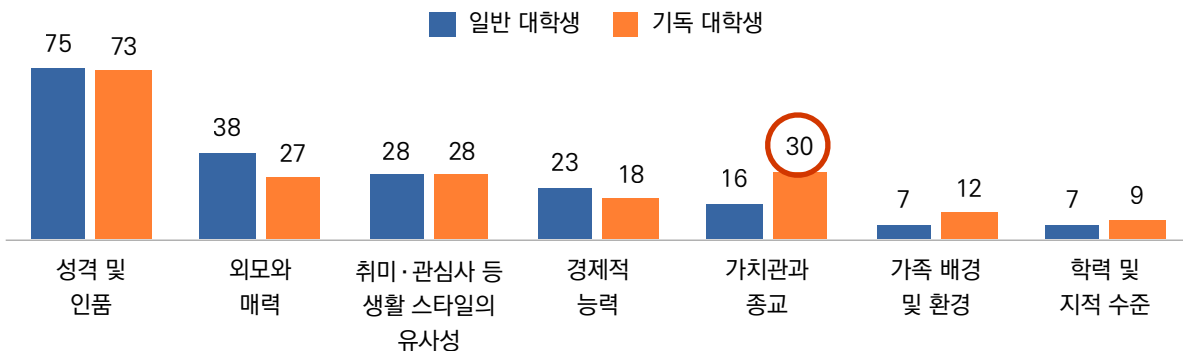
[그림] 비혼주의에 대한 인식 (%)



배우자 선택 1순위는 '성격과 인품', 기독교 대학생은 '종교' 중시!

- 배우자 선택 기준(1+2순위)을 묻은 결과, 일반 대학생(75%)과 기독교 대학생(73%) 모두 '성격 및 인품'을 압도적인 1위로 꼽았다. 이는 결혼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면의 됨됨이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가치관과 종교' 항목에서 나타났다. 기독교 대학생은 30%가 이를 주요 기준으로 선택해 일반 대학생(16%)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신앙적 일치감이 기독교 청년들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배우자 선택 기준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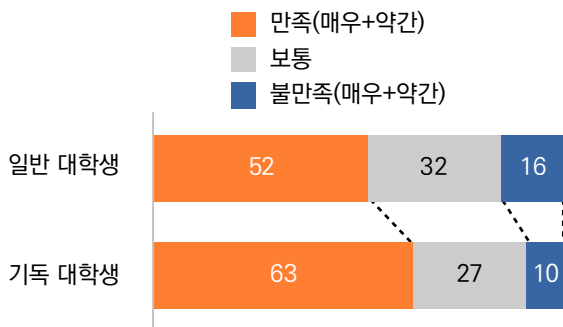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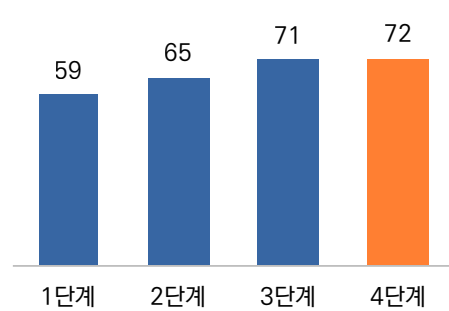
[생활 만족도와 정신 건강] 기독교 대학생, 신앙 깊을수록 일상 만족도 높다!

- 평소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기독교 대학생(63%)이 일반 대학생(52%)보다 11%p 높아, 전반적으로 기독교 청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일반 청년들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특히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신앙 단계가 깊어질수록 일상생활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신앙적 성숙이 단순히 종교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실제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일상생활 만족도 (%)



[그림] 신앙단계별 일상생활 만족도 (기독교 대학생, 만족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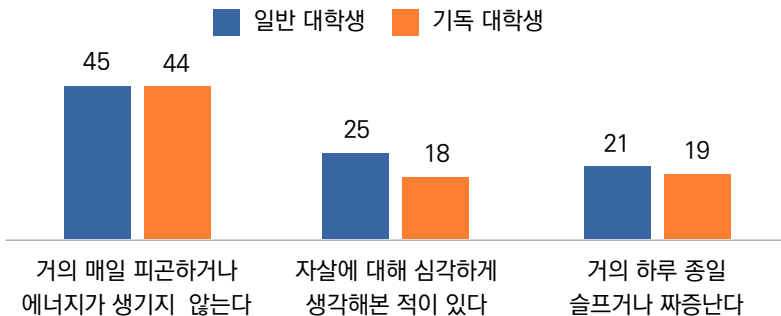
Note) 신앙단계 설명

-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기독교 대학생 10명 중 4~5명, '매일 피곤하고 무기력'!

-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현재 대학생들의 정신적-정서적 상태를 살펴본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일반 대학생 45%, 기독교 대학생 44%), 상당수 대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도 일반 대학생은 25%로 4명 중 1명에 달했다.
- 전반적으로 일반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자살 생각 등 일부 항목에서는 기독교 대학생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그림] 삶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그러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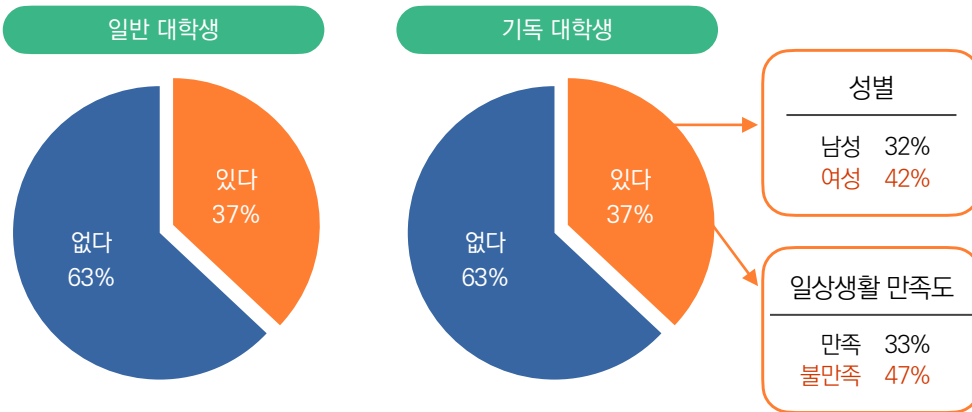


*4점 척도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1명 이상, 최근 1년간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경험!

- 지난 1년간 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여부를 묻은 결과, 일반 대학생과 기독교 대학생 모두 37%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3명 중 1명 이상꼴이었다.
- 정신질환 경험 비율은 성별과 삶의 만족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의 경우 42%로 남학생(32%)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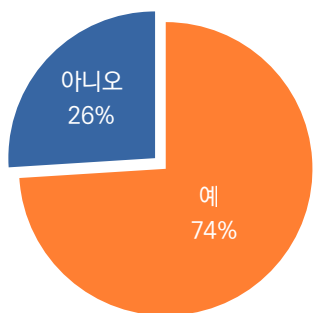
[그림] 지난 1년간 정신질환(불안증, 수면장애, 우울증) 경험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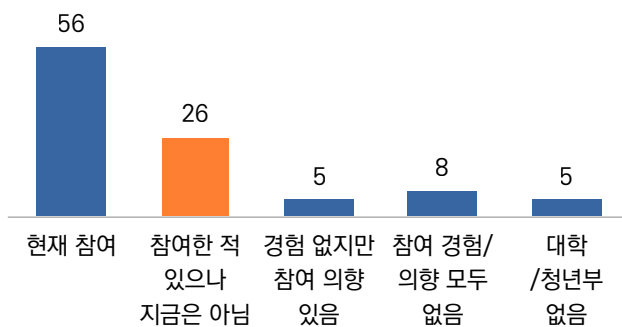
03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 기독교 대학생 중 가나안 학생 26%!

- 기독교 대학생들의 교회 출석 여부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교회 출석률은 74%였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학생’ 비율은 26%로 조사됐다.
- 청년부 참여 현황을 보면 ‘현재 참여’가 56%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참여한 적 있으나 현재는 아님’이 26%로 나타났다. 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 대학생 가운데 4명 중 1명꼴은 청년부 예배나 청년 공동체 활동에서 이탈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림] 교회 출석 여부 (기독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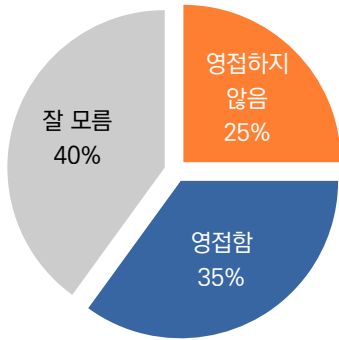
[그림] 청년부 참여 여부 (기독교 대학생, %)



기독교 대학생 4명 중 1명, '예수 영접 안 했다'!

- 기독교 대학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부를 묻은 결과, '영접했다' 35%, '영접하지 않았다' 25%로 4명 중 1명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 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나 자신의 신앙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대학생 비율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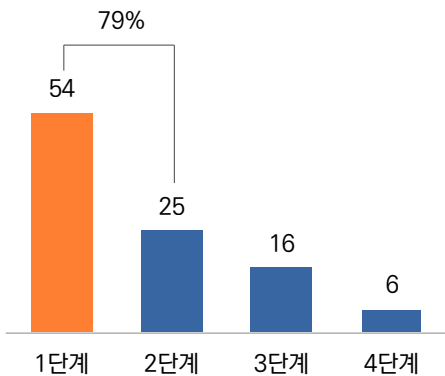
[그림]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부 (기독교 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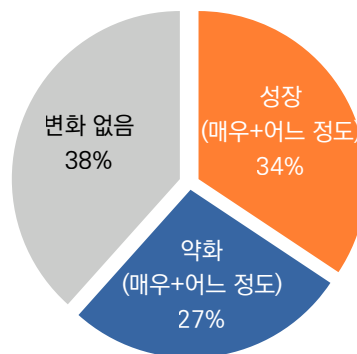
기독교 대학생 79%, 비교적 낮은 신앙 수준(1·2단계)!

-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단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낮은 신앙 단계인 1단계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단계 25%까지 합치면 전체의 79%가 비교적 낮은 신앙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 입학 후 신앙 변화를 묻은 결과는 약화 27%, 변화 없음 38%, 성장 3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신앙을 유지하거나 성장했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더 높은 편이었다.

[그림] 신앙단계 (기독교 대학생, %)



[그림] 대학 입학 후 신앙 변화 (기독교 대학생)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Note) 신앙단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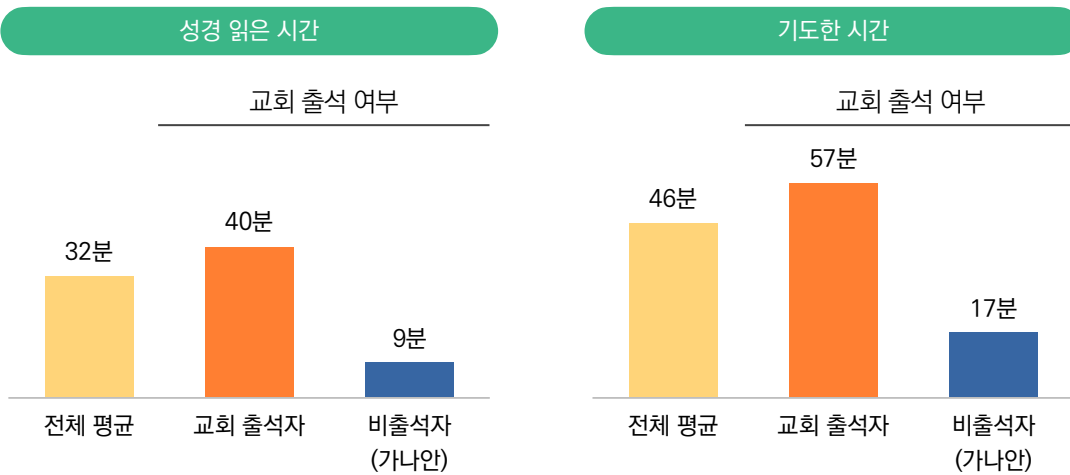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교회 출석 대학생, 비출석자(가나안)보다 성경·기도 시간 3~4배 많아!

- 기독 대학생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간 개인 경건 생활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로 나누어 물은 결과,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간 성경 읽은 시간은 평균 32분, 기도 시간은 평균 46분으로 나타났다.
- 이를 교회 출석 여부별로 비교해보면 성경 읽은 시간은 출석자 40분, 비출석자 9분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기도 시간 역시 출석자 57분, 비출석자 17분으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그림] 지난 일주일간 경건 생활 시간 (기독 대학생)



이번호 요약

1. 대학생 10명 중 9명, 행복의 조건은 '돈'!

- 대학생들의 물질주의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돈은 행복의 조건이다'에 일반 대학생(93%)과 기독교 대학생(92%) 모두 압도적인 동의율을 보였다.

2. 기독교 대학생, 일반 대학생보다 결혼 의향 11%p 높다!

- 결혼 의향을 보면 기독교 대학생(61%)이 일반 대학생(50%)보다 '결혼할 것'이라는 응답이 11%p 높게 나타났다.

3. 기독교 대학생, 신앙 깊을수록 일상 만족도 높다!

- 평소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매우+약간 만족)는 기독교 대학생(63%)이 일반 대학생(52%)보다 11%p 높았고,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신앙 단계가 깊어질수록 일상생활의 만족도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나는 청년입니다 (김맥 저, CLC(기독교문서선교회))

관련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목회 적용점

이번 조사는 캠퍼스 복음화의 주역인 기독교 대학생들이 오늘날 어떤 가치관과 정서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기독교 대학생의 92%가 '돈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응답해, 이들의 가치관이 일반 청년들(93%)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오늘의 캠퍼스 사역이 단순한 종교적 훈련을 넘어 돈과 성공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삶의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독교 대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불안과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기독교 청년 대학생 사역이 이제 '정서적 돌봄'과 '신앙 양육'을 분리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면서 정신적인 아픔이 치유되고, 한편으로 신앙적 훈련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돌봄 환경이 중요하다.

한편 기독교 대학생이 일반 대학생보다 결혼 의향이 높고 일상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난 점은 희망적인 신호다. 특히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건강한 신앙 정체성이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정서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기독교 대학생 사역의 핵심은 학생들이 캠퍼스, 가정, 친구관계, 교회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학생으로서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구현하도록 도움으로 이들을 캠퍼스 복음화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업무 숙련도와 자영업 소득
2. 소득 수준별 외로움 체감도

넘버즈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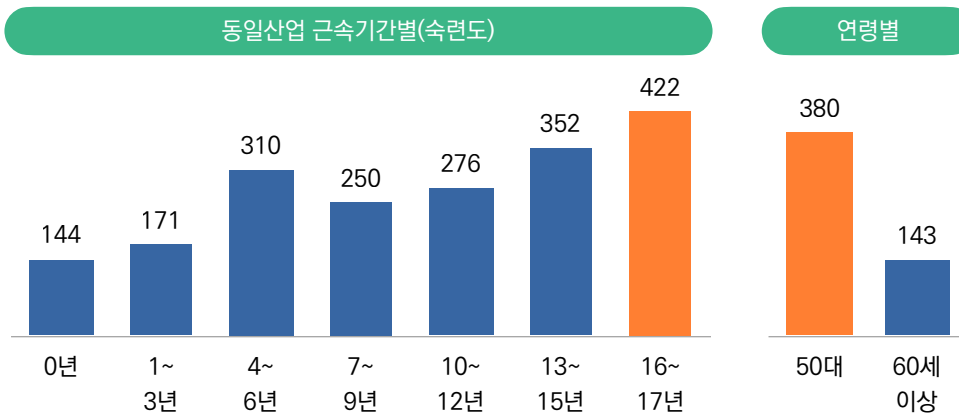
AI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일하는가
: 직업을 넘어 소명으로



[업무 숙련도와 자영업 소득] 은퇴 후 자영업 성패, '동종 업종 숙련도'가 결정한다!

- 은퇴 이후 고령자(50세 이상)들의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의 동종업종 경력의 자영업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과 동일 산업에서 일한 경험 정도, 즉 숙련도에 따른 고령자의 월 소득 수준을 보면, 전혀 경험이 없는 '0년'은 144만 원이었으나, '16~17년'의 높은 경력에서는 월 소득이 422만 원으로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동종업종 업무 숙련도를 은퇴 이후 자영업에 활용했는지 여부가 은퇴 후 자영업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에 목회자들은 성도들, 특히 60대 이상 성도들이 전혀 숙련도 없는 분야의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더욱 신중할 것을 조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자영업 월 평균 소득 (50세 이상, 만 원)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자의 노동이동: 생애 주된 숙련의 활동 관점에서(김두순/지은정), 202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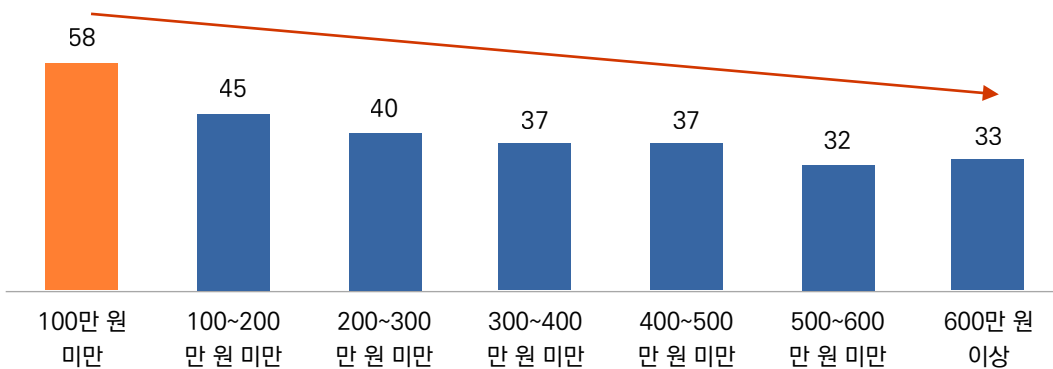


[소득 수준별 외로움 체감도]

월 100만원 미만 가구, 600만원 이상 가구보다 1.8배 더 외롭다!

- 최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 수준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외로움 체감도(자주+가끔 느낌)는 58%로, 600만 원 이상 가구(33%)에 비해 2배 가까이(약 1.8배) 높았다.
-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과 외로움 체감도는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적 빈곤이 관계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지원 체계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월 평균 가구소득별 외로움 체감도 (13세 이상 인구, '자주+가끔 느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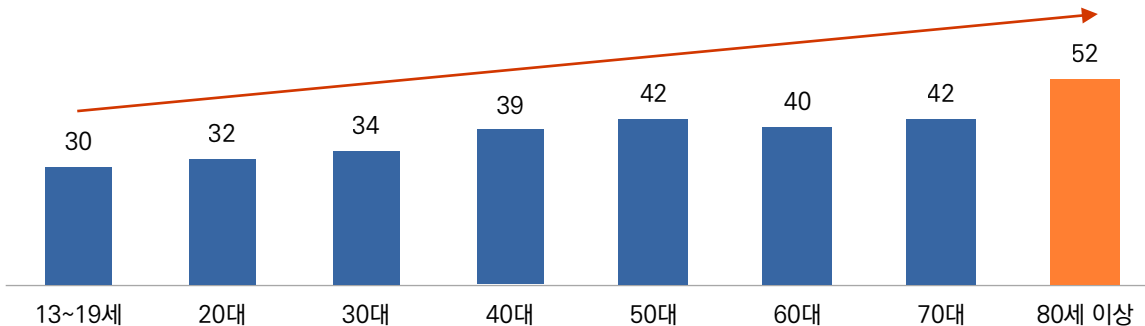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2025년 사회조사 결과(외로움), 2025.1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0R&conn_path=I2)

*4점 척도

초고령층일수록 외로움 체감도 높아져!

- 연령별 외로움 체감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52%) 초고령층에서 외로움 느낌(자주+가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 반면 4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외로움 체감도가 30%대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연령별 외로움 체감도 (13세 이상 인구, '자주+가끔 느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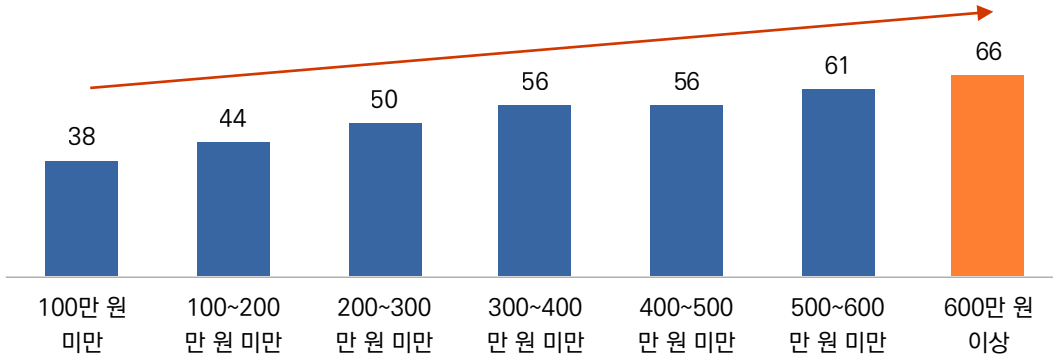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2025년 사회조사 결과(외로움), 2025.1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0R&conn_path=I2)

*4점 척도

소득수준 높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도도 높다!

- 인간관계 만족도를 가구소득별로 살펴본 결과,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인간관계에 '만족한다' 비율이 38%로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600만 원 이상 가구의 인간관계 만족도는 66%로 나타나, 100만 원 미만 가구의 1.7배를 웃돌았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월 평균 가구소득별 인간관계 만족도 (13세 이상, '매우+약간 만족' 비율*, %)



※출처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2025년 사회조사 결과(외로움), 2025.11.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0R&conn_path=I2)

*5점 척도

AI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 일하는가: 직업을 넘어 소명으로

이춘성 박사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I 시대의 직업 지형 변화

지난 5년 사이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단순한 기술 혁신의 차원을 넘어 노동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힘으로 부상했다. 대규모 언어모델의 등장은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글쓰기, 분석, 코딩, 설계, 기획과 같은 고도의 인지적 과업을 자동화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우리는 어느새 “기계가 인간을 보조하는 시대”를 지나 “기계가 인간의 전문적 과업을 대체하거나 재편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 변화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추상이 아니다. 이미 노동시장 지표 속에서 구체적인 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이력서와 채용 공고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에서는 주니어 직급의 고용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면 시니어 직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고용 감소는 해고의 증가가 아니라 신규 채용 축소를 통해 이루어졌다.1) 기업들이 당장의 생산성 변화뿐 아니라 ‘앞으로 자동화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경력 초기 인력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일상의 장면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다. 과거에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데이터를 정돈하는 역할을 신입 사원이 맡았다. 그러나 이제는 인공지능이 몇 분 만에 초안을 만들고 통계를 요약하고 기초 분석을 수행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굳이 그 역할을 사람으로 채울 필요가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그 ‘첫 자리’가 사라질 때 젊은 인력이 어디서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영국 노동시장 분석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된다. 대규모 언어모델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전체 고용은 감소했고 그 영향은 저연차·초급 직급에 집중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저임금 부문이 아니라 오히려 고임금·고속권 직군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2) 과거 자동화가 주로 중간 숙련·루틴 직무를 대체했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초급 분석, 문서 작성, 데이터 처리와 같은 ‘지적 루틴 업무’를 먼저 압박하고 있다. 자동화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충격은 청년층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30일 보도된 중앙일보 영문판 진지민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11월 40대 취업률은 1995년 이후 같은 달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40대 관리직의 퇴직은 늘어나고, 재취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도 덧붙여졌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관리직 수요 감소”가 지목되었다. 이제 인공지능은 경력 초기 인력뿐 아니라 중년의 중간 관리자에게도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제 질문은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없애는가, 늘리는가”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일의 수’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 자체를 다시 쓰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산업화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직업 구조는 지금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인공지능이 바꾼 일의 지형과 상황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것은 옳은 일인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한다면 이전의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었던 것일까?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에도 여전히 ‘소명’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께 묻고 결정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일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직업 소명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고자 한다. 그 전통 속에서 오늘의 기독교인이 직업과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oreanchristianethics.com/archive/3053>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54호 \(2026년 3월 1주\)](#)

- 지방선거 결과 기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부동산 정책 평가와 집값·임대료 전망

사회 일반

[자살률 2년째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

한겨레21_2026.3.6.

[“부모 부양은 자식 몫?”…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중앙일보_2026.3.9.

[성인 60% 이상,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독서율 역대 최저](#)

연합뉴스_2026.3.6.

[AI 혁명 첫 피해자는?…고학력·고소득 화이트 칼러가 대체되고 있다](#)

중앙일보_2026.3.9.

[강아지 이름으로 기부하고 함께 외식도…우리집 막내 된 ‘댕냥이’](#)

동아일보_2026.3.7.

아동 · 청소년 · 청년

["현재 5살 아이들, 15년 뒤 직업 구할 필요 없을 것"](#)

연합뉴스_2026.3.7.

[결혼은 하는데 결혼식은 안 하는 ‘노웨딩 MZ들’ \[세태+\]](#)

더스쿠프_2026.3.6.

노인

['노년의 비극' 80세 이상 남성 자살률 가장 높아…평균의 3.7배](#)

연합뉴스_2026.3.9.

경제 · 기업

[직장인 56% “급여만으로 생계 유지·미래 대비 불가능”](#)

시사저널_2026.3.8.

[최근 2년, 직장인 세금 부담 커졌는데…2~5억 고소득층은 ‘그대로’](#)

한겨레_2026.3.3.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6천855달러…원화절하에 0.3% 성장 그쳐](#)

연합뉴스_2026.3.10.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건강

[\[위클리 건강\] 잠 부족이 눈 섬유화 촉진... "망막전막 위험 25% ↑"](#)

연합뉴스_2026.2.28.

[신장암 환자 10명 중 4명이 30~50대... 젊은이들에게 무슨 일이](#)

조선일보_2026.3.5.

[괴롭히는 사람 많으면 빨리 늙는다...제일 위험한 건 가족](#)

매일경제_2026.3.6.

[한국인들, 다이어트에 관심 많지만... 실제 노력은 '글세'](#)

헬스조선_2026.3.5.

트렌드

[후덕죽 같은 어른 없나요...2040이 서점으로 가는 이유 \[.txt\]](#)

한겨레_2026.2.28.

기획기사 : [간병의 늪에 빠진 한국], 조선일보

[간병 노인 100만 시대... "부모 돌보다 역대 빚" _2026.2.19.](#)

[퇴사·학업 포기... 위기의 간병 가족들 _2026.2.20.](#)

["치매 아버지 또 쫓겨나" 늘어나는 간병 난민 _2026.2.21.](#)

["사라지고 싶다"... 간병 맡은 4050 우울감, 일반 성인 4배 _2026.2.24.](#)

[급증하는 간병비... 한국 '노인 빈곤 OECD 1위' 굳어질 듯 _2026.2.24.](#)

[요양병원 간병인 79%가 60대 이상...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 _2026.2.26.](#)

["혼자 24시간 일해" 근로시간 제한 없는 간병인 _2026.2.2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교회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Up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Forward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Inward

그리스도의 몸
친교

Outward

예수의 섬김
봉사

Onward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출간 (비매품)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7」을 출간하였습니다. 책 제작을 위해 재정 후원을 해주신 한소망교회(원로목사 류영모, 위임목사 최봉규)에 감사를 드립니다.
- 후원자에게 책을 발송합니다. 책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구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2-322-0726)

연구소 소식

소그룹 솔루션 1Day 워크숍

저희 연구소와 MOU기관인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솔루션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3월 19일(목) 10:30~16:00
- 2) 장소 : 비욘드처치(구로동로 47길 6, 3층)
- 3) 교육비 & 베네피트 : 5만원(구독교회 3만원), 라잇나우미디어 2주 구독권
- 4)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KCMC [루아흐 : 다시 숨 쉬는 목회] 컨퍼런스

CTS기독교TV가 목회자의 관계·마음·가정을 다시 점검하는 '목회자 자기 관리'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 1)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후 1시
- 2) 장소 : 장충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50)
/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 및 목회자 부부 동반 참석 적극 권장)
- 3) 참가비 : 무료
- 4) 사전 신청 링크 : kcmc.or.kr
(매주 발행되는 KCMC 연구 보고서 신청도 함께 하세요!)
- 5) 문의 : 02-6333-0088 (CTS 미래교회연구소)

신청 링크

